

# 世界各國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 美 國

### ● 舊 AT&T系 7社에 정보서비스업 認可

美연방재판소는 舊AT&T系의 지역전화 7개사에 대하여 정보서비스 사업 참여를 인가하였다.

인가조건은 각사의 독립을 전제로 하며, 신규사업의 수입이 모회사 총수입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84년 AT&T의 분할 이후 이들 7社에 대한 정보서비스 등 非전기통신사업에의 참여는 금지되어 왔었다.

### ● A세트社, 航空安全시스템 提案

美 에비에이션 세틀라이트(A세트)社가 항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통신시스템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회의에 제안, 38개국 항공사 대표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 시스템은 통신위성을 사용, 비행중인 항공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승객이 기내에서 자유로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데, A세트社는 내년 중에 이를 실제 운용할 예정이다.

### ● 반도체업계 이익 크게 늘어

일본기업의 수출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미국의 반도체 업계가 지난해 10억달러의 이익을 올리며 순조로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입 제재조치, 엔 고·달러절하로 인한 일본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미국 컴퓨터 메이커들의 次世代 컴퓨터 개발 등이 꼽히고 있는데 올해 이익은 13억달러로 예상된다.

### ● AT&T와 SUN, 共同戰線 구축

AT&T와 선 마이크로시스템社가 共同으로 90년대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시장 석권을 위한 공동기반 구축에 나섰다.

양사는 이미 85년 유닉스 시스템 V와 4.2BSD를 통합하는 구상을 발표한 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말 공동기자회견에서 「AOE (Application Operating Environment)」와 「OAA (Open Application Architecture)」라는 응용시스템 체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하드웨어, OS, 윈도우 관리시스템과 네트워킹 관리시스템을 포함한 「Enhanced SystemV」로서 광범위한 次世代의 표준을 정한 것인데, 이로써 양사는 次世代 유닉스 시스템 V의 개발과 32비트 RISC(명령단축형 컴퓨터) 아키텍처인 「SPARC」를 중심으로 시장확보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

한편, AT&T는 선 마이크로사의 주식 20%를 취득했다.

### ● 캘리포니아州 在宅근무 실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在宅근무 실험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이 계획은 비용과 에너지 소비, 사람과 자동차의 운행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집무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우하우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근무자의 집에 퍼스컴이나 전화, 대형 컴퓨터의 전용터미널을 제공하는 것이 재택근무의 방법으로 채택됐다. 이번 실험대상 인원은 200명이며,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2년간 재택근무의 효용성에 관한 자료를 얻어낼 방침이다.

### ● 복제 소프트웨어 적발 組合 설립

미국의 퍼스컴 소프트웨어 대형회사인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슈튼테이트, 애플 등을 포함한 약 10개사가

소프트웨어의 복제품을 적발하고, 법정투쟁을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組合, 「Business Software Association」을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우선 당면목표를 홍콩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 시장에서의 복제 적발에 두고 있다.

### ● 소프트웨어업계 IBM에 소스코드 公開요구

미국의 소프트웨어업계 단체인 ADAPSO (全美 정보처리서비스업 협회)가 IBM에 소스코드 (原始프로그램)의 公開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IBM - 후지쯔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을 둘러싼 AAA (美仲裁협회)의 중재로 IBM이 후지쯔에만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인데, 이들은 IBM에 정식 공개요구를 하는 동시에 美 법 무성에도 獨占禁止法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 日 本

### ● 國際 VAN 競争 개시

일본내 VAN의 國際化, 競争化가 실현되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국제 VAN 서비스가 자유화된 이래 우정성에 신청·등록한 업체는 10개사에 달하며, 그중 2개사(네트워킹정보서비스, 일본전기)가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올 1월에는 일본ENS가, 2월에는 국제VAN사가 연이어 서비스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전용선을 KDD로부터 임차해 독자적인 서비스체계를 자유롭게 설계·제공하게 되는데, 새로 국제 VAN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각사는 從量制와 定額料金制를 조합하여 종전보다 낮은 요금(약 20%~50%인하)과 양질의 서비스 양면에서 큰 경쟁효과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에 자극을 받은 KDD는 1월부터 VENUS-P의 요금을 평균 10% 낮추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미국의 TYMNET와 제휴한 네트워킹 정보서비스사의 경우 국제간에 전자우편등을 주고받는 퍼스컴용 데이터전송서비스인 「TYMPAS」를 운영 개시하였는데, 종래의 절반 값으로 보다 원활하게 미국의 퍼스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접속대상은 컴퓨서브(CompuServ), 델피(Delphi), 다우존스(Dow Jones), 뉴스넷(News Net), BRS, MCI메일 등 거의 모든 미국의 퍼스컴통신을 망라하며, 가입료 5천엔, 기본요금 매월 9백엔, 국내접속지점은 31개소이다.

### ● NTT 데이터通信本部 分離

우정성은 NTT(日本電信電話)의 民營化이후 가장 큰 과제로 되어왔던 데이터 通信事業本部를 분리·독립 시킬 방침을 굳혔다. 새로 분리되는 회사는 NTT와는 자본관계가 없는 순수민간기업으로 하며, 데이터본부의 사업 가운데 公共性이 높아 채산을 맞추기 어려운 사업은 계속 NTT가 취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연간 8백억~1천억엔에 달하는 일본 최대의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VAN업자 단체인 특별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협회는 공거래를 위해 ①NTT와 자본·인사를 완전 분리하며, ② 나아가 다시 몇개의 회사로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 KDD, VENUS-P에 고속서비스

KDD(일본국제전신전화)는 VENUS-P(국제공중데이터전송서비스)에 64kbps의 고속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는 올 8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NTT의 ISDN(종합정보통신망) 서비스인 「INS네트 64」와 접속하는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현재 VENUS-P로 이용될 수 있는 전송속도는 최고 9,600bps이다.

또한 KDD는 回線交換서비스 VENUS-C를 올 봄에 추가하고, 국제ISDN에도 대비하고 있다.

● 全國銀行協會 IC카드 표준안 발표

全國銀行協會聯合會가 일본내 은행발행 IC카드의 표준이 될 은행업무용 IC카드의 표준안을 발표했다.

이 표준안은 NTT나 유통업 등 廣域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카드 발행처에서도 이에 준하기로 결정되어 있어 사실상의 일본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①이 표준안을 따르면 量産効果에 의해 IC카드의 값이 싸지며, ②銀行의 決濟기능과의 連動이 가능해지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 汎用프리페이드사업 개시

지폐, 신용카드에 이어 「제3의 通貨」로 주목을 받는 프리페이드카드(支拂濟카드)의 본격적인 이용이 개시된다.

NTT의 전화카드, 교통기관·세탁소·다방 등의 유통·서비스업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이제 여러 기업이 상호협력, 전국적인 규모로 이용하는 汎用프리페이드카드사업이 금년중 여러개 등장할 전망이다. 그 중심역할은 CSK와 46개사가 공동출자하여 87년 12월에 발족한 일본카드센터(JCCK)와 87년 11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NTT와 도시은행 등이 출자한 일본카드시스템(NICS)이 맡게 된다.

카드의 발행기준에는 음식점, 여객운수업 등의 同一업종간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하며, 「商品券」에 준하는 성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JAN등록사 3萬 突破

JAN (Japanese Article Number) 코드의 상품메이커코드 등록사수가 87년 10월말 3萬을 넘어섰다. JAN 코드는 상품의 패키지에 바코드로써 인쇄하고,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에서의 입력이나 EOS (전자발주 시스템)에서의 데이터 교환에 사용하는데, 유통업무 합리화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코드다.

● 低價格 音聲會議시스템 발매

NTT에서는 50만엔 이하의 음성회의시스템을 3월말에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전기, 후지쯔, 마쓰시다 등에서도 음성회의 전용시스템을 판매하고 있으나 가격은 1백만엔 이상이다.

이 NTT의 음성시스템은 한쪽 마이크 6본, 20명 정도가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별도의 전용회선이나 전용회의실을 갖출 필요가 없이 통상적인 전화회선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모듈러단자에 전화선을 연결하는 것만으로 장착할 수 있다.

● 郵政省, 퍼스컴研究会 설립

우정성은 최근 퍼스컴통신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퍼스컴과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통신을 전화와 팩시밀리에 이은 「제3의 전화」로 인식하고, 일반대중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종합네트워크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퍼스컴 6백만대, 워드프로세서 4백만대 등 총 1천만대 가량이 보급되어 있으나 통신용 이용대수는 10만대로 미미한 이용실태를 보이고 있다.

우정성은 미국의 퍼스컴통신 이용대수가 5백만대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 발전성이 크다고 판단, 이 연구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 JIS漢字 第3水準 制定추진

JIS(일본공업표준) 제1, 제2漢字 이외의 漢字코드(16비트 부호)를 제정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작업은 제1, 제2수준에 없는 약 6천자의 文字코드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의 JIS한자코드체계는 78년에 제정되고 83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비한자(英·數기호, 가나 등) 약 500자, 제1수준 한자 2,965자, 제2수준 한자 3,388자에 2바이트코드가 배정되어 있다.

일반사무처리에서는 제1, 제2의 6,353개의 한자로써 큰 지장이 없으나 인쇄업, 人名·地名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글자부족을 인식, 각사·각단체가 저마다 독자적인 外字를 만들고 있어, 사용빈도나 필요성이 높은 漢字 약 6천자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은 이달 중에 나오고, 연말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ASEAN諸國과 퍼스컴通信 개시

외무성 산하단체인 재단법인 국제협력추진회는 AS-

EAN(동남아시아연합)의 각국을 연결하는 퍼스컴통신 실험을 올초부터 시작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보루네이·필리핀과 일본을 연결하여 電子會議를 여는 것인데, 일본과 ASEAN 각국의 청년들이 국제협력과 대학간의 네트워크 실현성에 관해 토의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각국은 87년 9월부터 조사를 해왔으며, 호스트컴퓨터는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각국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 유 럽

### ● 和 APT, 스페인과 통신기기 합작생산

美 AT&T와 네덜란드 필립스의 合作會社인 APT는 스페인의 전화회사 테레호니까와의 사이에 통신기기의 개발·생산을 목적으로 한 합작사업협정을 맺었다.

앞으로 이들은 인텔리전트형 교환기, 光통신 동축케이블용 전송장치 및 관련시스템을 합작개발·생산하게 된다.

### ● 佛 자동차무선전화 民間會社 탄생

프랑스의 통신자유화 제1탄으로서 DGT(통신총국)와 병행해서 영업할 자동차무선전화 민간기업체가 곧 탄생한다.

프랑스 최대 水道會社인 제너럴 데조社와 스웨덴의 노키아社 등이 10억프랑을 투자해 설립할 이 기업은, 내년 3월 이전에 파리에 통신망을 개설하고, 오는 91년에는 프랑스 전국의 85%에 해당하는 지역을 커버하게 된다. 초기단계에서는 1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기 타

### ● 아시아 3개 航空社 公共豫約시스템 개발

홍콩의 CPA항공, 싱가포르항공, 태국항공 등 아시아의 3개 항공사가 공동으로 예약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이들 항공사는 최근 合作會社를 설립하고 내년 말에 전면적인 가동을 할 예정인데, 당초 이 구상에는 일본항공과 호주의 칸타스항공도 참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컴퓨터센터 설치장소등의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위의 3개 航空社만으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 ● 世界 最長 光통신회선 완성

호주의 멜버른으로부터 수도인 캔버라를 거쳐 시드니에 이르는 光통신회선이 최근 완성됐다.

전체길이가 1천km를 넘어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光통신회선인 멜본-시드니 간의 회선 완성으로, 그간 9천 회선이던 두 지역간 회선 용량이 12만2천 회선으로 대폭 증강되었다.

### ● 브라질 SW 保護法 發効

브라질의 사루네이대통령이 최근 소프트웨어 保護法案에 서명하였다.

내용을 보면, 국산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방치해 왔던 미국산 소프트웨어의 복제 판매를 금지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소유권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

## 情報通信振興協會 입회안내

情報化 社會의 기반조성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내 전산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업계지원책을 펴나가기 위해 출범한 저희協會는 電算網事業에 관련된 모든 업체 및 기관을 會員으로 맞아들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會員자격 : 정보통신 역무제공업자, 전산망사업자(H W업체 및 S W 업체), 공중통신사업자등 전산망에 관련된 모든 기관 및 업체.
2. 가 입 비 : 50만원
3. 월 회 비 : 5만원(분기별로 납부)
4.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전화 : 796-6444, 796-6555)